

한국 토착종교와 (土着宗教) 불교의 습합과정 (習合過程) -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 | |
|--------------------|---|
| 저자 (Authors) | 최종석 |
| 출처 (Source) | 불교학보 35 , 1998.12, 269-286 (18 pages) BUL GYO HAK BO 35 , 1998.12, 269-286 (18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265 |
| APA Style | 최종석 (1998). 한국 토착종교와 (土着宗教) 불교의 습합과정 (習合過程). 불교학보, 35, 269-286.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7 09:33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韓國 土着宗教와 佛敎의 習合過程

- 山神信仰을 中心으로 -

崔 琮 錫

I. 緒言

II. 山神의 起源과 性格

1. 토탐미즘(Totemism)과 山神
2. 天神降臨의 檀君神話와 山神
3. 「복」思想和 山神의 性格

III. 新羅의 護國思想과 山神信仰

1. 新羅 始祖神話의 構造와 新羅建國
2. 新羅 護國山神의 由來
3. 山神의 護國的 展開와 新羅佛敎

IV. 結語

I. 緒 言

韓國文化의 深層을 形成하고 있는 土着宗教는¹⁾ 東北아시아와 內陸 유라시아 일대에 퍼져있는 宗教現象인 샤머니즘(Shamanism)에 그 뿌리를 두고, 韓國의 특수성을 지니게 된 文化現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土着宗教는 韓國文化의 核을 이루면서 繼承되었고, 시대적인 趨移에 따라 變容되었음은 물론이다. 土着宗教 속에서 古代 韓國人들의 生活과 神話와 宗教의 祭禮가 서로 얽힌 文化現象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혹은 外來宗教와의 同化作用에 의하여 변모된 토착종교, 토착문화 속에서 한국적인 文化 傳承의 脈과 그 단면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문화적 고향과 의식의 深部に 잠겨있는 ‘잊어버린 얼굴’을 찾아내어 우리시대에 있어서 傳統文化는 어떠한 양상으로 계승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종교문화의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먼저 土着宗教 중에서도 가장 始原的인 종교현상으로 나타나는

1) 한국 고유의 종교전통에 대한 용어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 연구자들은 나름대로 고유신앙, 재래신앙, 토속신앙, 원시종교, 神敎, 巫俗信仰, 巫敎, 仙敎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 종교전통의 성격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토착종교는 다른 지역이나 민족의 종교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특히 한국의 종교전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꾸준히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껏 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가장 오래된 종교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토착종교는 외래종교와 대비되는 개념이고 또한 토착문화는 이러한 종교현상과 문화를 통칭한다. 서영대, 「한국고대종교 연구사」, 『해방후 50년 한국종교 연구사』(도서출판 창, 1997) 223쪽 참조.

山神信仰의 기원과 성격을 고찰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新羅에 있어서 山神은 어떤 성격을 띄게 되는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산신신앙과 佛敎와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융화의 習合過程에서 山神은 당시 신라의 정치상황과 신라불교의 특성 안에서 결국 護國神으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외래종교인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Ⅱ. 山神의 起源과 性格

1. 토템미즘(Totemism)과 山神

古代에 있어서 韓半島와 東北滿洲에 걸쳐 居住하던 種族은 주로 濊貊人들로서 狩獵과 원시적인 목축과 농경을 생활 수단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²⁾ 그들은 未開時代에 있어 주로 狩獵生活을 영위하였기에 山岳은 그들 활동의 주된 場所였다. 衣·食·住의 대부분을 山岳에 의지하였기에 산악은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산악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가려서 尊崇하고 제의를 지냈다. 이러한 수렵제와는 狩獵文化圈에서 나타나는 종교현상으로서 니오라제(Nioradze)나 파프로트(Paproth)같은 학자는 살해된 동물들의 복수에 대한 공포감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³⁾

종교의 기원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서구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토템미즘의 개념을 해켈(Haekel)은 “동물과 자연 대상물에 대한 경외심, 개인이나 집단(씨족)의 해당 토템에게의 친족의식과 느낌 내지는 그와의 동질성, 이런 이유에서 이들을 죽이거나 먹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토템은 부족을 상징하고, 사회통합 기능으로서 금기의 의미를 지니며, 부족끼리의 혼인이나 족외혼과 같은 제도의 성격을 갖게 하는 부족의 종합적인 정치적 문화적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동물을 살해하여 먹고 또 제의를 지내는 수렵제의가 꼭 토템미즘의 성격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수렵제이나 토템미즘이 동물을 숭배하는 원초적인 종교 심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칭하는 동물숭배나 수렵제의 등의 종교제의를 광의의 토템미즘 테두리 속에 넣어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2)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8-9쪽.

3) G.Nioradze, Der Schamanismus bei den siberischen Völkern, Stuttgart 1925(이홍직 역, 『시베리아 채민족의 원시종교』, 신구문화사 1976) 68쪽.; Paproth, Das Bärenfest der KETO in Nordsibirien, in: Anthropos Bd. 57, 1962, 55ff.

4) Haekel, Idolkult und Dualsystem bei den Ugrien(Zum Problem des eurasiatischen Totemismus), in: Archiv für Völkerkunde, Bd.1, Wien 1946, 98쪽(이정재, 『동북아의 금문화와 금신화』, 민속원 1997), 141쪽에서 재인용.

5) 이정재, 위의 책, 141쪽.

北方民族의 토렘 동물에는 샤만의 조력신 역할을 하는 곰과 호랑이를 비롯하여 사자·여우·늑대·뱀·용·순록·개·말·등과 독수리·까마귀 등의 새들 그리고 물고기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곰과 호랑이의 崇拜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토렘숭배의 배후에는 多獲을 바라는 狩獵民族의 祭儀的인 願望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⁶⁾

고대 韓國民族도 곰이나 호랑이를 토렘으로 숭배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古代 濊에서 호랑이와 곰을 神으로 섬겼다는 기록이 있으며⁷⁾ 『魏書』勿古國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나라 남쪽에 太山이 있는데 魏言에서 이르기를 태백산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호랑이, 곰, 이리가 있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사람은 산 위에서 오줌 같은 것을 배설하지 못하며 그 산을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물건을 치우고 간다.⁸⁾

이와 같은 동물숭배는 山岳崇拜와 결합되어 더욱 확고한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곰과 호랑이는 山神으로 추앙된 것으로 본다.⁹⁾ 그러나 곰이나 호랑이가 山神으로 숭배되기 이전의 始原的인 山神崇拜는 애니미즘(Animism)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고 보며, 여기에 동물숭배와 결합된 토렘적인 山神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다시 山神은 인격화(personification) 과정을 거쳐 복합적인 요소를 지닌 山神으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토렘山神 이전의 山神은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山에 대한 일반적인 종교현상이다. 山을 두려움과 외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민족은 거의 없으며 각 민족마다 山과 연관된 神들과 精靈들에 대한 신앙을 전해왔는데 역시 始原的인 모습은 山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광대한 크기나, 우뚝 솟은 형태,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서 구름에 잠긴 신비스러운 분위기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¹⁰⁾

다음으로 동물이 山神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民譚이나 傳說에서 호랑이를 山君靈으로 부르고 있으며 山神堂이나 山神圖에도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한편 곰崇拜도 널리 분포되어 있으니 北유럽에서부터 東北아시아를 거쳐 美國에 이르기까지의 광막한 지대에 걸쳐 곰의 祭儀가¹¹⁾ 존

6) 金烈圭 『韓國의 神話』(一潮閣 1976) 18쪽.; Shirokogoroff, Psychometal Complex of the Thungus, Peking, 1935, 174f.; W. Leifer, Bärenverehrung im eurasisch-nordamerikanischen Raum, in: Forschungen zur Anthropologie und religionsgeschichte 19, Saarbrücken 1984, 105f.

7) 『三國志』魏志 東夷傳 第十三 濊條 “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祀祭虎以爲神.”

8) 『魏書』勿古國條 “國南有徒太山 魏言太白 有虎兇熊狼不害人 人不得山上浚汗 行運山者皆以物盛去”

9)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고대민족문화연구소, 348쪽.

10) 李恩奉 『韓國古代宗教思想』, 집문당 1984, 100쪽.

11) 註 3), 4) 참조. 李恩奉, 앞의 책, 128쪽 참조.

재하며 古아이누族은 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또한 곰은 山神이었고 그들의 祖上이라고 믿었다는 프레이저(Frazer)의 報告가 있다.¹²⁾

오늘날 山神圖나 彫刻에 表現되는 山神은 호랑이를 옆에 거느리고 있거나 호랑이의 등위에 타고 있는 騎虎老人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山神으로 추앙되던 곰과 호랑이 중에서 곰은 아예 그 모습을 감추고 白髮老人이 호랑이를 거느리며 山神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山神은 애니미즘적 성격에서 토렘미즘적인 모습을 띠다가 人格神으로 자리를 잡게된 것이다. 한국 山神의 定型化된 모습은 白髮老人이다. 여기에서 山神의 복합적인 형태인 白髮老人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問題삼아 보자.

孫晉泰는 “호랑이의 勇猛한 異常성이 崇拜의 對象이 되어 虎山神 사상이 계승되어 오다가 他地方에서 形成된 산악을 人格神으로 하는 原始信仰이 서로 합하면서 人格神思想이 우세한 경우에는 虎는 오직 山神의 使者로 간주되고, 虎山神思想이 우세한 경우에는 虎가 山神으로 신앙되어왔다”¹³⁾고 하였다. 이 견해는 虎山神 숭배와 人格山神 숭배가 각각 다르게 존재하면서 서로 세력교체와 갈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孫晉泰는 산신신앙의 성격이 복합적이고 발전적인 양상을 띄어간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熊山神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趙芝薰은 “처음에 호랑이를 산신의 變態로 보다가 차츰 山神이 人格化하여 人間形態로 변하게 되면서부터 호랑이는 山神의 使者로 또는 말(馬)로 畏敬된 것이다.”¹⁴⁾라고 밝혔다. 이 주장은 애니미즘적인 山神이 호랑이로 교체되었으나, 山은 神들의 거주처일 뿐만 아니라 山 자체가 인격화되었으며, 山神은 擬人化되어 추앙되었다는 信仰對象의 進化發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왜 그렇게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 動機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熊山神의 성격이나 행방에 대한 논구가 결여되었다.

그러면 왜 山神으로 숭앙 받아 온 곰과 호랑이 중에서 곰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白髮老人이 山神의 자리를 잡게 되었나 살펴보자.

2. 天神降臨의 檀君神話와 山神

山神信仰은 복합적으로 애니미즘과 토렘崇拜에 연유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호랑이와 곰의 關係, 또한 騎虎老人의 정체를 문제삼았다. 이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作業으로 神話를 읽을 必要를 느낀다. 神話는 原始民族의 世界觀의 表現인 동시에 歷史의 記述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¹⁵⁾

12) Frazer, Golden Bough(張秉吉譯, 황금가지 II, 삼성출판사), 177쪽.

13) 孫晉泰 『民俗學論攷』 民學社 1975, 194쪽.

14) 趙芝薰 『累石壇·神樹·堂집 信仰研究』 『趙芝薰全集 第5卷』(一志社 1973) 184쪽.

15)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대출판부 1970) 5쪽.

그리고 아무리 原始民族의 未開心에 의하여 이야기되는 神話라 할지도 그것은 당시에 있어서 전체 세계이고 現實이었던 것이기 때문이다.¹⁶⁾ 물론 神話는 역사적 사실로 간주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山神의 起源을 밝히고 그 성격을 찾아내는 열쇠로서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즉 古代人의 生活과 宗教現象을 상징적으로 表現한 神話의 構造를 通하여 당시의 信仰樣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檀君神話에서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다.”¹⁷⁾ 라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곰토템 부족과 호랑이토템 부족이 서로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¹⁸⁾ 北方아시아 民族 중 곰토템 부족의 南下와 고대 韓族 중 호랑이 토템부족이 서로 結合하여 東南으로 이동하였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실로 北方 아시아 民族, 즉 곰토템 부족은 漢의 發展 팽창에 따라 北으로 또는 東北으로 이동하였고, 혹은 잔류하여 同化하였다고 한다.¹⁹⁾ 이것은 漢族의 發展方向으로 미루어 北方族의 이동경로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中國 山東 武氏祠堂의 畫像石에는 호랑이에게서 사람이 태어나는 그림이 있는데,²⁰⁾ 이것은 호랑이와 곰의 關係를 部族의 이동으로써 理解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熊虎同穴’의 의미와 熊山神이 虎山神으로 變貌하는 것은 토템部族의 結合과 移動에 기인함을 미흡하고 막연하게나마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山神의 모습으로서 대두되어 호랑이를 使者로 거느리는 白髮老人을 다시 檀君神話의 意味를 따라 찾아내 보기로 하자.

옛날에 桓因-帝釋을 이른다-의 庶子 桓雄이 계서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 사람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그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의 神檀樹 밑에 내려와서 이곳을 神市라 불렀다. 이 분을 桓雄 天王이라 한다. 그는 風伯, 雨師, 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中略…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환웅에게 사람되기를 빌었다. …中略…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으므로 항상 檀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하였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檀君王儉이라 일렀다. …中略… 단군은 이에 藏唐京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돌아와 阿

16) 위의 책

17) 『三國遺事』紀異 卷第一 古朝鮮條 “時有…熊…虎 同穴而居”

18) 趙芝薰, 앞의 책.

19) 金廷鶴 「檀君神話와 토템미증」 『歷史學報 第7輯』, 285쪽.

20) 金載元 『檀君神話의 新研究』 探究堂, 1976.

斯達에 숨어 山神이 되었는데, 나이가 일천구백여덟 살이었다고 한다.²¹⁾

단군신화는 어느 한 시대를 한정하여 서술한 것이 아닐 것이다. 신화 속에는 원시 고대인의 우주, 문화, 인간에 관한 지식이 총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단군신화는 건국신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고대 종교현상과 문화의 原型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 인용한 단군신화의 要旨는 天帝의 자손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다가 隱退하여 山神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대인의 하늘에 대한 신앙, 즉 天神信仰의 성격과 양태를 찾아 볼 수 있다.

桓因은 본래 佛教의 護法神으로 33天의 主神 釋迦提婆因陀羅(Sakra-devānām indra)를 말하는 것이다. 줄여서 釋帝桓因이라고 부른다. 이를 우리말에서 ‘환’이란 光明을 나타내고 ‘환입’은 광명한 하늘의 神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음에 가까운 桓因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²²⁾ 사실은 우리 민족 고유의 하늘신을 불교적 天神인 天帝 곧 天帝釋桓因으로 그 개념을 정립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착신인 하늘신이 불교적 이름을 빌려온 것이며, 불교가 일반화되면서 불교적 용어로 表記된 것이다. 이는 곧 토착신앙에서의 天上개념이 佛教의 天上개념을 빌려 체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桓因~桓雄은 帝釋~四天王의 位階와 일치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天神 桓因의 아들인 桓雄은 風伯, 雨師 雲師를 거느리고 地上으로 降臨한다. 風·雨·雲은 原始 農耕社會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현상들이다. 농경사회로 발전된 고대국가 사회에서 자연현상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곡물을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온 존재로서 桓雄은 至高한 神으로 신앙된다. 따라서 檀君神話는 穀物栽培民의 農耕神話이며, 桓因은 농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太陽神 즉 천신이고, 桓雄의 地上에로의 降臨은 穀物栽培民의 原初的 播種의 신화적 投射로 보기도 한다.²³⁾

수렵사회로부터 形成되어 전승되어 오던 動物 토템 신앙이 農耕民들에게 있어서는 大地의 딸인 熊女로 재생되어 太陽神의 아들 桓雄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象徴적으로 태양신과 地母神의 결합에서 풍성한 農作物, 많은 家畜, 子息, 富, 降雨를 구하는 祭禮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²⁴⁾ 여기에서 한가지 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수렵사회와 달리 농경사회는 식물문화(Vegeture)를 이루게 되고, 농

21) 『三國遺事』紀異 卷第一 古朝鮮條,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可視三危 太伯, 可而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二千, 降於太伯山頂 神檀樹下謂之神市是謂桓雄大王也, 將, 風伯 雨師 雲師 而主穀 主命主病 主刑 主善惡…中略…熊女者無與爲婚 故每日於檀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中略…檀君乃移藏唐京 後遷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下略…”

22) 柳東植 『韓國巫教的 歷史와 構造』, 延大出版部 1975, 30쪽.

23) 黃滄江 『韓國叙事文學研究』, 檀大出版部 1972, 118쪽.

24) 위의 책, 119쪽.

경에서의 노동의 개념은 사냥이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땅으로부터 풍요를 바라는 염원은 호랑이의 날렵한 용맹성보다는 곰의 둔중함과 끈기가 대지와 더 친근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제 조금이나마 山神의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초기의 山神信仰은 애니미즘적 산악숭배였다가 수렵 사회 속에서 熊虎의 토템적 신앙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다시 수렵사회가 농경사회로 변천되면서 農耕神의인 天神降臨의 남성적 太陽神과 결합하는 여성적 地母神으로 熊虎의 성격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山神圖에서 보여지는 백발노인이란 熊虎의 女性的 의미와 결합한 男性으로서의 天神이라고 추정을 해 본다. 이는 山神信仰의 주된 목적이 降雨, 子孫, 守護, 救病, 豊饒 등으로서 곡물재배민들의 願望을 위한 部落祭로 전승되었다는²⁵⁾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로써 天神의 자손인 檀君이 “후에 아사달로 은퇴하여 山神이 되었다”는 『三國遺事』의 記事는 農耕神의 산신신앙의 성격을 알려준다.

농경사회로 발전된 고대국가에서는 부족 중심의 토템신앙이나 동물숭배의 차원을 벗어나 농경사회와 밀접한 하늘과 땅이 결합된 산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산신은 국가적 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격이었다.

다시 天神의 子孫인 檀君이 山神으로 되는 삼국유사의 記事에서 고대인들의 종교관념과 세계관을 알아보자. 古代人의 世界觀은 天上~高山~人間世上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늘과 인간의 교섭처로서 高山을 聖域으로 숭배하였는데,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골라 ‘북외’(白山)라 불러 숭앙하였다. 또한 그 곳에는 神壇을 쌓아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단군은 이 ‘북외’에서 祭祀를 지내는 祭天者였다.²⁶⁾ 여기에서 단군은 蒙古語에서 하늘을 뜻하는 ‘Tenger’를 음寫한 것이고 ‘王儉’의 ‘검’은 신령을 뜻하는 ‘Kam’을 음사하여 漢字로 表記한 것이라고 한다.²⁷⁾ 따라서 ‘단군왕검’은 天神인 하늘님을 뜻하는 ‘Tengri-Kam’에서 由來하는 것이다. 단군은 始祖의 의미 이외에도 하늘님의 아들·神人·天君·巫君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三韓時代에도 司祭者를 두어 天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를 천군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을²⁸⁾ 보면, 고대사회에 있어서 天神에 대한 제사행위가 국가적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사장이었던 天君 즉 단군이 山神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韓國 山神信仰은 天神信仰이 깃들여 있다.

이제까지 天神~檀君~山神이라는 等式을 살펴보았거니와, 토템 熊虎의 地母神의 再生의 女性화와 農耕太陽神의 남성적 降臨으로 단군신화를 이해하였을 때, 단군은 天·地의 창조적 결합의 意味를 內在的으로 所有하면서 태어난 宗教觀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檀君은 天·地를 조화시키며 연결시키는 存在로서, 天

25) 柳東植, 앞의 책, 270쪽.

26) 趙芝薰, 앞의 책, 173쪽.

27) 崔南善 『不成文化論』(崔南善全集 第2卷 玄岩社 1973), 60쪽.

28)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 (李民樹譯 『朝鮮傳』 探究堂 1974), 107쪽,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名之天君”

地의 교섭처인 山의 神이 될 수 있었으며, 여성적 地母神의 性格으로 변화된 토렘 熊虎는 자연스럽게 山神인 檀君을 보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展開시킴으로써 韓國 土着山神의 起源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고, 山神으로 表現되어온 ‘騎虎老人’의 정체가 떠오르게 된 것이다.

土着山神은 결코 熊虎가 사람으로 進化發展한 것이 아니며 또한 虎山神 勢力과 人格山神 勢力의 교체됨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土着山神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騎虎老人을 단순한 變化의 문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太陽神의 天神崇拜와 농경민의 생활근거를 이루는 大地의 地母神의 性格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대지와 친근한 꿈은 地母神으로서 天神과 일치하여 山神 속에 융화되었고, 호랑이는 山神을 호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 「붉」思想과 山神의 性格

韓國山神의 原型으로서 檀君概念이 어떤 의미구조를 갖고 어떠한 思想的 背景을 가지며 발전해왔는가 그것을 究明할 때 더욱 土着山神의 位置와 性格이 드러나고, 古代信仰에 있어 韓民族이 추구하던 宗教的 希願이 무엇이었나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桓雄이 降臨한 곳이 太白山이며 檀君이 都邑을 세운 곳이 白岳山 阿斯達이었다. 白(伯)山이 神話의 舞臺가 되고 있다. ‘白’은 崔南善의 『不或文化論』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붉’이며, 이것은 韓民族의 宗教事象 내지 모든 文化過程의 核心을 이룬다고 하였다.²⁹⁾ 古代韓國에서는 太陽, 밝음, 光明을 세계의 으뜸으로 삼았으며 天帝를 칭하는 ‘하느님’은 태양의 人格的 呼稱이었다.³⁰⁾ 그런데 太陽, 하늘, 밝음, 神을 칭하는 成語로서 더 많이 사용된 것은 ‘붉’ 이기에,³¹⁾ 白(Park, 붉)山은 곧 神山을 뜻하는 것이다. 天이라는 추상적 존재를 밝음을 대표하는 太陽으로 구체화시켰으며, 다시 太陽과 더욱 친근하려는 要求에 應하여 ‘붉피’, 즉 ‘白山’은 神山으로서 信仰의 대상이 된 것이다.

古代에 있어서 山岳 자체에 대한 애미니즘적인 숭배가 농경사회에 들어서서 山岳崇拜의 주류는 농경신앙에 근거하여 天界의 降臨信仰과 太陽의 權現, 혹은 太陽神이 깃들여 있는 ‘붉山’의 意味가 支配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神體로서의 山이 ‘붉山’으로 호칭되었고 한국 山名엔 ‘白’字가 들어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白頭山, 長白山, 祖白山, 太白山, 小白山, 鼻白山, 旗白山, 淨白山, 白雲山,

29) 崔南善, 앞의 책, 44쪽.

30) 위의 책.

31) 위의 책.

白月山, 白巖山, 白馬山, 白鶴山, 白華山 등이다.³²⁾

또한 檀君의 郡邑을 세운 阿斯達이란 말은 아침이란 ‘아사’와 谷地, 山의 뜻인 ‘달’의 合成語로서 ‘아침들’, ‘朝山’, ‘朝光’을 뜻하며 漢譯하여 朝鮮이라 하였다.³³⁾ 아침의 태양이 비추는 光明의 나라라는 뜻이다. 단군신화의 記事처럼 韓民族은 그들이 사는 세상까지 光明한 곳으로 삼고 사랑하였기에 하늘을 상징하는 桓雄도 밝은 땅에 내려오고 싶어했고(貪求人世), 땅을 상징했던 熊女도 人間이 되길 소망(願化人間)한 것이다.

古代 韓民族은 유랑하던 수렵 유목생활로부터 安定된 農耕生活로 定着하게 되면서 당연히 하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農耕栽培와 직접적 관련인 敬天思想이 싹트게 되었으며, 농경민은 단군을 始祖로 삼아 스스로 天孫이 되었고, 또한 밝음을 숭상하고 지향하는 부족임을 神話의 構造를 통하여 알아낼 수 있었다.

韓民族을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뽕달’(‘달’은 山의 古語)에서 音轉된 것이다. ‘뽕’→‘박’→‘백’→‘배’로 音轉하여 ‘배달’이 되니, 이는 ‘뽕山’ ‘白山’에서 유래된 것이다. 또한 檀君을 다른 말로 ‘한배검’이라 부르는데 太白神(太=한, 白=백→배, 神=검)이란 뜻이다.³⁴⁾ 이것으로 보아서 檀君이 太白山神(뽕달검)인 것을 알 수 있고 단군이 山神이 되었다는 『三國遺事』의 記事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韓國 土着山神은 山岳崇拜에서 단순하게 人格神化한 것이 아니고 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光明神, 太陽神, 하느님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山神은 밝음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民間信仰의 最高對象이 되어 계승되어온 것이다. 檀君, ‘한배검’이 韓民族의 始祖일진대 檀君이 山神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故鄉이 ‘뽕山’이며 ‘뽕山’은 종교적 신앙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고, 山神은 우리 民族에 있어서 가장 原型的으로 지고한 信仰의 對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민족의 종교적 희원은 광명한 세상의 구현에 있었으며, 來世의 이라기 보다는 現世의 인 종교성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Ⅲ. 新羅의 護國思想과 山神信仰

1. 新羅 始祖神話의 構造와 新羅建國

新羅에는 朴, 昔, 金氏의 세 始祖의 神話가 있는데 이것들은 신라 宗教文化의

32) 李恩奉, 앞의 책, 99-148쪽 참조.

33) 李丙燾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瑞文堂 1973, 60쪽.

34)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고대민족문화연구소, 294쪽.

脈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준다. 신라국을 세운 赫居世의 神話를 살펴면서 문제의 核心으로 進入해 보자.

赫居世 神話에 관해서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神話의 성격과 構造를 살펴 당시의 宗教現象의 象徵的 意味를 밝혀보려는 바, 歷史的 事實의 문제를 보다 종교현상에 대하여 根源的으로 提示하고 있는 『三國遺事』에 신라의 시조 혁거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楊山 아래 蘿井 곁에 이상한 기운이 전광처럼 땅에 비치는데 흰말 한 마리가 풀어 앉아 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붉은 알 한 개-혹은 푸른 큰 알이라고도 한다-가 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는 길게 울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깨어보니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놀라고 이상히 여겨 그 아이를 동천에서 목욕시켰다.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지므로, 그 일로 인하여 그를 혁거세왕이라 이름했다.(혹은 弗矩內王이라고 하니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중략… 位號는 居瑟邯이라고 했다.(혹은 居西干이라고도 하니 이것은 처음 말할 때에 스스로 關智居西干이 한번 일어났다고 했으므로 그 말로 인해서 부른 것이다.…下略…³⁵⁾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赫居世는 하늘의 子孫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이란 다름 아닌 ‘뵈’의 음계이고, ‘赫’은 ‘뵈’의 訓借이다.³⁶⁾ 또 ‘弗矩內’라는 異稱이 있는데, 그가 밝은 빛으로써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이라고(光明理世)한다. 그렇다면 ‘弗矩內’의 ‘內’를 訓讀하면 ‘불거안’이 된다. ‘불거안’은 蒙古語나 Tungus語의 불칸과 같은 뜻이 되는데, ‘Burkhan’은 天神, 또는 光明神을 나타내는 말이다.³⁷⁾ 赫居世는 ‘Burkhan’이었고 光明한 天神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檀君神話와 같은 類型으로 天神이 降臨하고 天神의 아들이 始祖가 됨을 볼 수가 있으며 ‘Burkhan(光明神)’ 신앙은 곧 ‘뵈’ 사상을 계승한 것이라고 본다.

古代 新羅人들은 天神의 아들을 始祖로 삼고 있으며 당시의 사회가 農耕을 중심으로 성장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赫居世가 자기의 탄생을 가리켜 ‘關智居西干’이 일어났다고 스스로 말한 것으로써 그 실마리를 잡게 되는데 ‘關’이 ‘알(卵)’인 동시에 穀食의 ‘알’을 뜻하는 것이라면³⁸⁾ 三韓의 農耕文化를 根幹으로 하여 성장해 온 新羅의 建國은 이미 성숙한 農耕社會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5) 『三國遺事』卷一 新羅始祖赫居世王條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 拜之狀 導機之有一紫卵 (一云青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或作弗矩王, 言光明理世也…中略…)位號曰 居瑟(或作居西干, 初開國之時自稱云關智居西干~起因其言稱之…下略…)”

36)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I』 고대민족문화연구소, 349쪽.

37) 崔南善, 앞의 책, 62-65쪽.

38) 柳東植, 앞의 책, 43쪽.

또 한편으로 赫居世의 姓이 ‘朴·뽉’이라는 점과 白馬의 상징이 北方系統이라는 점으로 볼 때, 新羅建國의 主導勢力이 文化的으로 先進族이었던 新來의 北方系가 아닌가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³⁹⁾ 그러나 오로지 北方系의 계승만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밀반침해 주는 점은 赫居世의 妃 閼英이 龍神(鷄龍)으로부터 태어난 점이다. 龍神은 南方系의 水神을 의미하는데, 龍, 龜, 鱉들은 주로 南方系 神話에서 보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상징이 밝혀지고 있다. 그것은 閼英이 태어난 龍은 鷄龍이라는 특수 동물인데, 이것을 鷄토템의 多産的 의미와 龍神의 결합으로 보는 見解가 있고⁴⁰⁾ 天神의 상징인 鷄鬣와 水神의 상징인 龍의 결합으로 창조된 새로운 상징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⁴¹⁾

어쨌든 이 神話는 단군신화와 같은 의미구조를 지니고 있다. 天神의 아들 赫居世와 地母神인 龍에서 태어난 閼英이 결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新羅建國의 뿌리는 農耕 三韓에 있다. 그 중도적 세력이 先進北方族일 가능성을 始祖인 赫居世의 姓이 太陽神의 後裔로서 朴, 즉 ‘뽉’이라는 것으로 살폈지만, 이미 農耕社會인 三韓에서도 ‘뽉’思想이 宗教的 根幹을 이루고 있음을 보아 ‘뽉’思想은 韓民族의 고유한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이제 新羅의 國號가 이루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고, 살펴보기로 하자. 『三國遺事』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라의 이름을 徐羅伐 또는 徐伐-지금 세간에서 京京 자를 혼독하여 서벌이라 이르는 것도 이 까닭이다-이라 하고, 혹은 斯羅 또는 斯盧라고도 했다. 처음에 王후가 계정에서 탄생한 까닭으로 혹은 계림국이라 하니, 계룡이 祥瑞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일설에는 탈해왕 때에 김알지를 얻어 닭이 숲속에서 울었으므로 이에 國호를 고쳐 계림이라고 했다 하는데, 후세에 와서 신라의 國호로 정했다.⁴²⁾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新羅가 三國時代의 弁辰의 一國인 斯盧國의 故地에서 발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斯盧’의 意味를 밝히면 자연 新羅國號의 뜻과 新羅建國의 배경이 되는 根本理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로(斯盧)’ ‘사라(斯羅)’ ‘서벌(徐伐)’ ‘서라벌(徐羅伐)’의 根源을 ‘蘇塗’에서 찾으려는 趙芝薰의 견해에⁴³⁾ 따라 살펴보기로 하자.

39)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探求堂 1964, 66쪽.

40) 李在秀 「朴赫居世傳說論考」『瀛西高乘幹博士順壽紀念論叢』慶北大 1960, 517쪽.

41) 趙芝薰, 위의 책, 66쪽.

42) 『三國遺事』卷一 紀異 新羅始祖赫居世王條 “國號徐羅伐,及徐伐(今俗訓京字徐伐以此故也)或云斯羅及斯盧初王(后)生於鷄井 故或云鷄林國 以其龍現瑞也 一說脫解王時 得金閼智 而龍鳴於林中 乃開國號爲 林後世遂定新羅之號”

43) 趙芝薰 「新羅國號論攷」『趙芝薰全集』第7卷(一志社 1973) 110-115쪽.

‘蘇塗’는 祭政一致시대의 三韓에 있어서 立杆民俗으로서 그 神域을 중심으로 祭天儀禮가 이루어졌다. ‘蘇塗’는 ‘上·高’의 뜻이고 하늘에 제사하는 神壇이다. 소도(蘇塗)는 ‘소로’로 읽히며 斯盧國·斯羅國은 실상 蘇塗國이며 ‘소로불’(徐羅伐·斯盧國)은 ‘蘇塗’의 祭壇이 있는 곳이고, 제단은 부락의 主山 高峰에 설치된다. 古代에서는 이 ‘소로’ ‘소로 뫼’를 중심으로 하여 부락이 형성되어 團結成長된 것이다. 여기에서 白山(북달) 崇拜, 즉 태양을 숭배하던 ‘뫼’ 사상의 신앙형태를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天神崇拜에 근원을 두었음을 알게 한다.

고대 韓民族은 북방에서 東南으로 여러 차례 移動하여 왔다는 것을 ‘南’의 古語가 ‘앞’으로서 ‘前’의 뜻과 같아든지 白衣民俗, 白山崇拜 등이 같다는 것으로 써 알 수 있겠다. 즉 南方과 北方의 古代 韓民族 같은 信仰習俗을 가졌던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太陽숭배나 神山(북산)과 같은 형태를 ‘蘇塗’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에서 新羅(소로뫼 → 新羅로 약칭, 東京이 시벌←시뫼에서 연유하였고 新明의 뜻)라는 國號가 연유되었다고 볼 때에 해와 달이 되었다는 ‘延烏郎·細烏女’의 전설도 곧 光明 太陽崇拜의 文脈 안에서 쉽게 이해되며, ‘鷄林’이란 國號도 닭(鷄)이 日光을 부르는 呪術者라는 점에서 避邪光明의 의미로 떠오르게 된다.

이상에서 新羅始祖 赫居世는 土着山神의 光明神, 太陽神, 天神의 성격과 일치하고 있으며 新羅의 國號 자체도 이미 ‘뫼’ 사상, 태양숭배의 종교적인 淵源에서 발생되었음을 살폈다. 그러므로 신라의 건국이념이 가히 古代 土着山神 신앙을 根幹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新羅 護國山神의 由來

新羅建國의 理念이 弃辰의 ‘蘇塗’에서 유래되었으며, 赫居世는 ‘蘇塗’의 祭司長으로서 이해되었다. 이제 新羅역사의 中心概念으로 대두되고 있는 ‘護國思想’과 ‘護國信仰’의 力動性을 土着文化의 문맥 속에서 찾아 보고 호국산신의 由來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의 악조건을 지닌 신라의 통일的大業을 성취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신라 佛敎의 호국사상을 지칭함이 通念化 되어 있다. 불교가 新羅 政治理念으로 채택되어 역사적 指導原理의 수행에 지대한 활약을 하였다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대한 先學의 연구업적은⁴⁵⁾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라의 호국사상이 오로지 불교에서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기 보다, 신라의 토착문화에도 이미 있어 왔을 것이다.

신라에서의 土着山神의 성격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변화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44) 趙芝薰, 위의 책, 113쪽.

45) 金東華 外「佛敎思想이 新羅의 三國統一에 미친 影響」『東大論文集 第12輯』 등 그 외에도 多數의 論文이 있다.

데 護國山神으로서의 그 위치를 굳힌 것은 제4대 脫解王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름을 脫解라고 했다 한다. 王位에 있는 지 23년 만인 建初 4년 己卯에 세상을 떠났다. 疏川丘에 장사를 지냈더니 그 후에 神이 명하기를, “내 뼈를 조심해 묻어라” 했다 한다. 파내어 보니 그 頭骨의 둘레는 세 자 두 치나 되고, 身骨의 길이는 아홉 자 일곱 치가 되고…중략…뼈를 부수어 塑像을 만들어 대궐 안에 안치했더니 神이 또 일렀다. “내 뼈를 동악에 안치하라” 그러므로 그곳에 모시게 했다.⁴⁶⁾

이 기록으로 볼 때 脫解王이 崩한 후에 뼈를 부수어 塑像을 만들어서 대궐 안에 모셨으나 神이 나타나 東岳(吐含山)에 묻으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三國史記』기록으로 비추어 볼 때 昔氏始祖인 脫解가 살아있을 때에도 吐含山과 특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록은 당시 국가의 방위에 있어서 토함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토함산은 倭寇를 막아내는 요새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3년 봄 3월, 왕이 토함산에 오르니 검은 구름이 마치 日傘처럼 피어 왕의 머리 위에 떠 있다가 오랜 뒤에 흩어졌다. 여름 5월, 왜국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사절을 교환하였다. 6월, 혜성이 天船에 빛났다.⁴⁷⁾

그리고 脫解가 東岳(吐含)神으로서 護國山神이라는 점은 신라에 있어서 護國思想이나 護國信仰이 고취되고 강조되던 때가 바로 통일전후의 武烈王, 文武王代인데 이때에 脫解가 文武王의 꿈에 나타나서 이른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文武王 20년(680년) 3월 15일辛酉 밤에 꿈에 험상궂게 생긴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脫解인데 내 뼈를 소천구에서 파내어 塑像을 만들어 吐含山에 봉안하라” 했으므로, 왕은 그 말을 좃았다고 하며 그런 까닭으로 지금까지 나라에서 제사지냄이 계속되어 왔으니 이를 東岳神이라 한다.⁴⁸⁾

이것으로써 脫解는 스스로 護國하는 山神이 되길 원했으며 결국에는 吐含山神

46) 『三國遺事』卷一 紀異 第四脫解王條 “脫解在位二十三年, 建初四年己卯崩, 葬疏川丘中 後有神詔 慎埋葬我骨其獨認周三尺二寸…碎爲塑像 安闕內 神又報云我骨置於東岳(吐含山) 故令安之”

47)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一 脫解尼師今 3年 春3月條 “王登吐含山 有玄雲如蓋 浮王頭上 良久而散 夏五月 與倭國結好交聘 六月 有星孛于天船”

48) 『三國遺事』卷一 紀異 脫解王條 “見夢於太宗(文武王)有老人貌甚威猛 曰我是脫解也 拔我骨於疏川丘 塑像安於吐含山 王從其言 故 至今國祀不絕 卽東岳神也云”

즉 東岳神으로 계속 추앙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문무왕 20년은 백제, 고구려와 전쟁이 심하던 시기였다. 이 해에 唐軍을 축출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민심이 피폐해졌고, 왕실은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탈해가 스스로 護國山神이 되고자 했던 것은 문무왕이 스스로 護國龍神이 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문무왕의 꿈에 나타난 탈해가 자신의 뼈로 만든 塑像으로서 국토를 지키는 護國山神이 된 것은, 결국 후에 文武王도 스스로 자신을 바다에 장사지내게 하여 바다를 지키는 護國龍神이 되게 하는 動機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王號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 新羅의 정치적 發展의 樣態를 볼 수 있다. 新羅에서 國家的 次元에서 護國이란 개념이 태어나게 되는 시기가 脫解代임을 알 수 있다. 즉 ‘居西干’⁴⁹⁾ 혹은 ‘弗居內’라고 하여 光明神의 祭主로서 始祖인 赫居世가 호칭되었고 제2대 南解居西干을 次次雄이라 불렀는데, 次次雄, 慈充은 尊長의 뜻이고 巫堂을 뜻하는 말이었다.⁵⁰⁾ 즉 南解居西干代만 하더라도 아직 祭政이 分離되지 않았으며 新羅가 部族들의 聯盟國家的 성격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 다음의 제3, 4대는 弩禮(儒理)와 脫解인데 이들은 처남, 매부 사이로서 王位를 서로 사양했고 연속하여 왕위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에 尼師今⁵¹⁾이란 칭호로 사용하였는데 新羅가 部族聯盟國家로 발전하던 시기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는 昔氏部族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한다.⁵²⁾ 昔氏部族의 慶州 平野로의 진출이 吐含山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는 본래 龍城國 사람ियो-또는 正明國 혹은 琡夏國이라고도 하는데 琡夏는 花廈國이라고 한다. 용성은 倭國의 동북쪽으로 천 리에 있다. 우리 나라에는 일찍이 28龍王이 있었소.” …중략… 아이는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데리고 吐含山 위에 올라가서 돌무덤을 만들었다. 그곳에 이레 동안 머무르면서 城中에 설 만한 곳이 있는가 하고 바라보았다.⁵³⁾

新羅에서 吐含山은 東岳으로 生命이 나오는 곳이며 죽으면 영혼이 돌아가는 곳으로서 옛날부터 神聖視되어 온 곳이었다.⁵⁴⁾

49) ‘居西干’의 ‘居西’는 ‘곳’이고 後代의 王號였던 ‘麻立干’은 ‘마리’의 譯이며, ‘干’이란 ‘간’으로써 ‘神人, 日人’의 뜻이다. ‘곳’, ‘마리’란 頭領의 뜻인 것이다.(崔南善『兒時朝鮮』『崔南善全集』第2卷, 182쪽.)

50) 『三國遺事』卷一 紀異 第二南解王條

51) 尼師今은 ‘잇금’으로 部族聯盟이 완성되고 尊長의 지위가 점점 고착화하며 세습적으로 물려 내려가게 되면서 생긴 이름인데, 이는 ‘主人·在上者’의 뜻이다.(崔南善『兒時朝鮮』『崔南善全集』第2卷, 182쪽.)

52) 李基白「新羅五岳의 成立과 意義」『新羅政治社會史研究』—潮閣 1975, 197쪽.

53) 『三國遺事』紀異 卷一 脫解王條 “我本龍城國人亦云正明國 或云琡夏國 琡夏或作花廈國龍城在倭東北…千里 我國嘗有二十八龍王…中略… 其童子曳杖率二奴 登吐含山上作石塚, 留七日望城中可居之地”

54) 崔南善, 앞의 책, 183쪽.

東方이란 太陽이 떠오르는 곳으로 生命의 本源이고 韓民族의 理想鄉이었다. 하늘과 世上의 交通은 東方에 있는 高山이 中繼點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東岳 吐含山은 전통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昔氏勢力은 토함산을 그들 세력의 상징적인 山岳으로 變容시킴으로써 新羅에서 특정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고 神聖視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서라벌의 기존세력이었던 朴氏勢力과의 정치적 연합을 뜻하고, 이때부터 완전한 고대 부족국가로서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昔脫解는 國家的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하던 당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의 人物이었으며, 그는 死後에도 國家를 守護하는 護國山神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이것을 신라 호국산신의 효시로 볼 수 있으니, 前代의 山神의 성격을 수용함에 종교적, 신앙적 차원의 山神으로부터 古代 部族國家로 발전함에 따라 정치적 차원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新羅의 山神은 政治發展에 따라 土着山神의 성격으로부터 당시의 國家 政治의 要求에 부응하여 호국적 성격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3. 山神의 護國의 展開와 新羅佛敎

新羅에서 山神을 호국적 차원에서 崇仰한 기록이 보이는데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山岳에 대한 國家的 祭祀이다. 大祀를 지낸 곳으로 奈歷(習比部), 骨火(切也火部), 穴禮(大城部)의 三山이고, 中祀의 對象으로서 東·吐含山, 南·智異山, 西·鷄龍山, 北·太白山, 中·父岳(公山)의 五岳이며, 小祀는 그 외의 24개 山岳에 지냈다.⁵⁵⁾

이들의 위치를 볼 것 같으면 三山은 대체적으로 新羅의 서울 金城을 중심으로 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中祀의 대상 五岳은 신라 영토의 동·서·남·북 및 중앙에 위치하고, 小祀의 諸山은 신라 영토 안의 각지에 흩어져 있다.

三山이 신라의 核이 되는 慶州 平野 中心의 斯盧國과 관련된 것이라면 五岳은 四鎮, 四海, 四瀆과 함께 統一新羅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⁵⁶⁾ 신라에서 名山에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山神이 살고 있는 곳으로 신앙되었기 때문이지만 그 신앙의 성격은 변화하였다. 이제 그 변한 모습과 성격을 알아보자.

三山信仰이 오래 전 斯盧國에서 성립된 것이라면 三山은 三蘇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다.⁵⁷⁾ 三蘇는 國都를 중심으로 北·右·左로 구성되었으며 三鎮山 혹은 三

55) 『三國史記』雜志 第一 祭祀

56) 李基白, 앞의 책, 195쪽.

57) 李丙燾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瑞文堂 1973, 330쪽.

58) 위의 책.

神山이라 할 수 있는 수호신의 住處이다.⁵⁸⁾ 『三國遺事』에 김유신을 위협에서 구하는 三山 護國神에 관한 기록이 있다.

우리들은 내림(奈林) 혈례(穴禮) 골화(骨火) 등 세 곳의 護國神입니다. 지금 적국의 사람이 郎을 誘引하는데도, 郎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므로 우리는 郎을 달리려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⁵⁹⁾

奈林은 지금 慶州의 狼山이고 穴禮는 堯山, 骨火는 永川의 金剛山이며 奈林(奈歷)은 左蘇이고 骨火는 北蘇이며 穴禮는 右蘇이다. ‘蘇’의 뜻은 언급되었던 바 ‘蘇塗’이니 三蘇塗山→三蘇山→三蘇→三神山, 즉 三鎮山→三山으로 연결된다. 이로써 三山신앙의 성격 역시 上古의 ‘뽕피’와 같은 계절의 신앙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中祀의 대상이 되었던 五岳崇拜와 護國신앙을 살펴보자. 五岳崇拜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연관을 갖고 성립되었다. 東岳인 吐含은 倭의 침략을 막으며 국경의 역할을 하고, 南岳·地理山은 伽耶와의 국경, 西岳인 鷄龍山은 백제를 대표하던 산이었다가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고, 北岳인 태백산은 고구려 舊土였으나 신라영토 확장과 더불어 흡수되었으며, 中岳인 八公山은 신라의 군사적 근거지였던 것이다.

이렇게 五岳은 다분히 신라의 영토확장과 관계를 가지면서 국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물론 이 五岳은 국가적 수호를 위하여 山神을 숭배한 곳이지만 막연한 국가 수호보다는 국가적 위협 세력을 진압하려던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五岳이 성립되던 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문무왕대에서 신문왕대 초로 보지만⁶⁰⁾ 五岳山神의 성격은 불교사상과의 융합을 통해 다분히 불교적으로 變容됨을 보여준다.

『三國遺事』에서 볼 수 있는 ‘仙桃山神母’는 比丘尼의 꿈에서 法事를 恒規로 삼을 것을 당부하면서 法事의 대상에 佛神 이외에도 土着 五岳山神을 포함시켰다. 또 ‘包山二聖’ 說話에도 山神인 靜聖天王이 일찍이 迦葉佛에게서 付囑을 받고는 산중에서 1천명의 出世를 기다림으로써 남은 果報를 받겠다는 誓願을 세웠다.

다시 『三國遺事』 ‘朗智乘雲 普賢樹條’를 보면 良州 阿曲縣 靈鷲山 산신령이 辯才天女란 불교의 金光明經에 나오는 護法神이다. 辯才天女는 음악·지혜·辯才·財福의 主宰者로서 美音天, 辯才天이라고도 하며, 형상은 머리에 흰 뱀으로 장식된 보배관을 쓰고, 오른손에 칼을, 왼손엔 구슬을 들고는 아름다운 소리으로써 衆生

59) 『三國遺事』 卷一 金庚信條 “我等奈林穴禮骨火等 三所護國之神 今敵國之人 誘郎引之 郎不知而進塗 我欲留郎而至此矣”

60) 李基白, 앞의 책, 205쪽.

을 기쁘게 하는 존재이다.⁶¹⁾ 이러한 불교의 護法神의 분위기로 山神의 성격이 변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靈鷲山神이 辯才天女로 등장된 기록은 ‘綠會逃名 文殊帖條’에도 있다.

이상의 說話를 통하여 土着山神이 불교 속으로 同和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土着山神은 佛에 대한 下等位階에 편입된 것이다.

또한 五岳 名山에 불교의 사원을 건립하여 당시 신라에서는 재래의 山神신앙의 靈場을 信佛의 道場으로 삼았다.⁶²⁾ 이는 물론 隋나라 文帝가 당시 중국의 五岳에 불교의 護國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시에 사원을 건립한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신라의 五岳에 세워진 불교사원과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山神신앙이 점차 불교 속으로 흡수되면서 山神의 聖域이 차차 불교聖地로 자리바꿈을 하게됨을 의미한다.

이것으로써 新羅佛敎의 특수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興國利民의 國家的 信佛경향으로 일관되었던 新羅佛敎는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이고 獨特한 信仰思想을 활발하게 전개시켰다. 그 중에서도 新羅가 이 地上에서 가장 훌륭한 佛敎國이며 또한 前佛時부터 佛緣이 두터운 現實的인 佛國淨土라는 佛國土 思想이 代表的인 信仰思想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⁶³⁾

앞에서 이미 언급한 說話에서 土着山神들은 본시 佛·菩薩의 眷屬이었다고 이해하는 新羅人의 信仰論理가 곧 그들의 독특한 신앙이었던 佛國土思想의 範疇에 속한다. 따라서 新羅佛敎의 위대한 점은 불교의 토착화에 있어서 신라 고유의 在來神을 거부, 타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攝受包容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라불교에는 土着神과 佛·菩薩이 共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라불교에 있어서 護國思想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불교의 호국사상은 『金光明最勝王經』, 『仁王般若經』, 『法華經』 등에서 강조되고 있다. 즉 佛陀의 가르침에 잘 따라서 父母兄弟 宗親朋友가 恭敬和順하면 곧 國泰民安하여 自然히 護國이 되어지며, 國王 및 大臣과 모든 백성이 正法에 隨順하면 世間이 안온해진다는 護世의 現法이 불교의 護國原理인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호국사상이 正法王國思想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思想을 신라인들은 독자적으로 수행해 갔는데, 신라를 곧 正法王國化하려 했던 노력을, 百高座會나 八關會를 개최하고, 도처에 佛土를 방불케 하는 塔婆나 伽藍, 佛像 등을 奉安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新羅人들의 思想的, 宗敎的 노력은 新羅가 王權을 확립하고, 三國統一을 國家的 목표로 삼아, 高句麗나

61) 『大正藏』第16卷「金光明最勝王經」卷7 大辯才天女品 434中.

62) 즉 五岳인 吐舍山에 佛國寺와 石佛寺(石窟庵)가 太白山에는 浮石寺와 浮岩寺가 八公山에는 地藏寺와 桐華寺가, 智異山에는 華嚴寺가, 鷄龍山에는 岬寺가 건립되었으며, 그 외의 名山에도 寺刹이 건립되었으니 靈鷲山엔 通度寺, 伽倻山엔 海印寺, 金井山엔 梵魚寺 등이다.

63) 金煥泰「新羅佛國土思想」, 『崇山 朴吉眞博士 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1975, 98쪽.

百濟와 角逐하던 시대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와 함께 社會統合의 理念으로서 호국사상은 土着信仰의 차원을 벗어나 佛敎의 영향으로 인하여 新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 된 것이다.

즉 山神信仰이 역사적으로 變容展開됨에 있어, 본래 갖고 있던 護國的 要因, 性格이 佛敎의 正法王國의 護國思想과 調和를 이루고, 융화되어 더욱 確固하게 民間信仰으로 民衆의 종교생활의 저변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IV. 結 語

지금까지 土着山神의 기원에 관한 문제와 신라에 있어서 山神의 護國的 전개 그리고 山神信仰과 불교와의 結合過程을 부족하나마 大略 살폈다.

‘韓國的’이라는 단어의 意味表象을 밝히는 작업으로 土着山神의 기원을 檀君神話의 구조 안에서 파악하여, 그 발전되어 온 모습을 호랑이와 곰의 관계를 따라 추적해 보았고, 韓民族 고유의 ‘북思想’을 援用하여 전형적인 山神으로 나타나는 騎虎老人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土着山神이 新羅의 護國思想과 調和를 이루며 어떻게 國家的 차원에서 창조적 힘을 발휘하였나 고찰하였다. 물론 한국 土着山神은 三國時代에 佛敎가 傳來되면서 초기에는 갈등과 마찰을 일으켰으나 結合의 過程을 거치면서 점점 적극적인 신앙형태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것은 佛敎의 護國思想이나 佛國土思想과의 邂逅에서 佛敎가 가지는 위대한 친화력과 포용력에 의해 불교적으로 攝受되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山神은 佛敎의 護法神衆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이것은 불교가 外來宗教에서 우리 민족의 종교로 정착해가면서 山神도 불교 속으로 편입되었고, 자연스럽게 山神은 자신의 위치를 갖고 존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土着信仰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한민족의 원형적이고 力動的인 사상을 계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韓國佛敎史의 章序를 열 수 있을 것이다. 韓國佛敎가 韓民族의 고유한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受容되었고 독자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은 곧 한국불교가 印度佛敎가 中國佛敎의 단순한 연장도 모방도 아니라는 점을 示唆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韓國佛敎의 眞面目을 보기 위해서 먼저 고유 土着信仰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종교적 의식의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고유한 종교적 숨결에 사랑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 종교사 敍述의 새로운 地坪이 열릴 것이라 본다. 끝으로 신라불교와 산신신앙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은 후일을 기약해 본다.